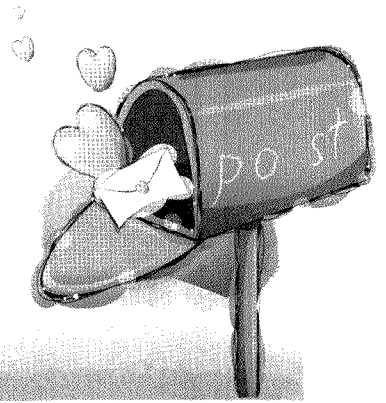




실림

포토뉴스



◆ 유엔사막화방지 창원총회 대단원의 막 내리다 ◆ (창원이니셔티브·비즈니스포럼 등 성과 “의장국으로서 후속조치 선도적 실행”)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가 21일 창원이니셔티브 채택과 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창원시 컨벤션센터(CECO)에서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는 UNCCD 194개 당사국 중 156개국 6450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알 나세르 유엔총회 의장, 아흐메드 조그라프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 83개국 장·차관 등도 참여했다.

이번 총회에서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및 가뭄(DLDD)’ 해결을 위한 10개년 전략계획(2008~2018) 평가를 위한 영향지표가 모두 구축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UNCCD의 재정을 담당하는 지구재정체계(GM)를 정비해 10년 이상 끌어온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된 것도 성과다. 또 10개년 전략계획의 중기 평가 틀이 만들어져 내년부터 평가가 가능해졌다. 지구재정기구(GEF)와 협력강화를 통한 재정확보 체계가 마련되는 성과도 있었다. 2010년부터 UNCCD의 재정기구가 된 GEF는 지금까지 국가행동 계획에만 재정지원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소지역과 지역 행동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DLDD 저감활동에 대한 지원도 늘릴 수 있게 됐다.

21일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창원이니셔티브는 DLDD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및 실질적 이행체계의 역할을 하게 된다.

DLDD 저감을 위한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었고 이를 위한 과학자문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창원이니셔티브는 DLDD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간 노력 뿐 아니라 지역간, 민간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DLDD 방지 우수사례를 공유하자는 데에도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사막화방지 협약 이행에 모범적인 국가나 단체에 주는 ‘생명의 땅(Land for Life) 상’도 신설됐다.

이번 총회는 환경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됐다.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녹화 성공사례에 큰 관심을 갖고 녹화기술 및 성공 노하우 등에 대한 공유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한국에 대해 20차례 이상 양자회담 요청이 이어졌다. 회담요청국은 대부분 그동안 한국과 산림분야 교류가 없었던 나라들이었다. 양자간 산림협력을 논의한 국가는 이란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오만 중국 탄자니아 콩고 터키 베냉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12개국이며 말레이시아 등 4개 나라도 산림협력 논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돈구 UNCCD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 한국의 녹색성장 가치를 전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총회로 산림·환경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아주 높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 바람직한 가로수 조성관리 방안 토론했습니다 ◆ (국회서 가로수심포지엄, 해외·지자체 사례 발표하고 정책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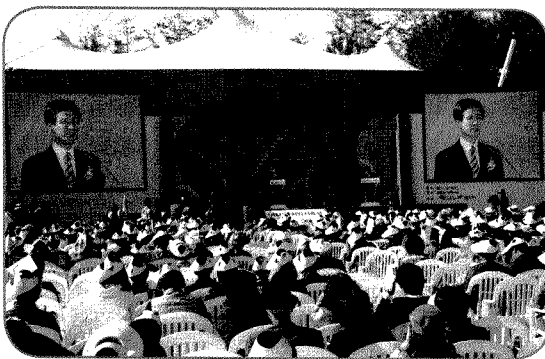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 주관하여 가로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단체, 언론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가로수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돈구 산림청장과 김효석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김성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석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장이 "가로수 정책방향 및 수종별 조성실태 분석"을, 김용환 한국조경수협회 부회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실태와 발전방향"을, 이규화 서울대 식물병원 박사가 "해외 가로수의 정책적 위치와 조성사례"를, 강점문 대구시 과장이 "지자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태"를 각각 주제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주 제 : 가로수 조성·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1. 11. 29.(화) 15:00~17:00
- ▶주최/주관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 산림청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 가로수 정책방향 및 수종별 조성실태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 김석권 과장)
- 가로수 조성·관리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조경수협회 / 김용환 부회장)
- 해외 가로수의 정책적 위치와 조성사례
(서울대 식물병원 / 이규화 교수)
- 지자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태
(대구광역시 / 강점문 과장)

◆ 제10회 산의 날 기념식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제10회 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19일 오후 서울숲에서 열렸다.

산림청과 서울특별시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돈구 청장을 비롯해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진수희·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산림청·서울시 관계자, 일반 시민, 임업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서울숲에서는 산림문화작품전시회와 꽃누르미 작품 전시회, 목재인형 공예체험 등 산과 나무를 이용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가족과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 제10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제10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와 '임업장비 실연회'를 27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국유림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선발된 13개 기능인 영립단이 숲가꾸기 및 벌채 작업에 사용할 집재 장비(2드럼 케이블윈치) 설치·사용 능력을 겨뤘다.

◆ 김제시 김산수변 도시숲 녹색도시 최우수상 ◆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경제자유구역청·원주·함평은 우수상)



전북 김제시가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선정하는 지자체 '녹색도시(Green City)'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뽑혔다. 김제시는 김산수변 도시숲과 황산들 봉황로 가로수를 잘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 미추홀공원 도시숲)과 강원 원주시(청곡근린공원 도시숲) 전남 함평군(엑스포공원 도시숲)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인 김제시 김산수변 도시숲과 황산들 봉황로 가로수는 체육공원과 연계된 저수지 주변 숲을 잘 가꾸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숲길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곳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정서적인 안정감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인천 송도 미추홀공원 도시숲은 매립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국제도시의 관문에 녹색도시 이미지를 구현했고, 강원 원주시 청곡근린공원 도시숲은 도심 학교용지(공원용지로 변경)를 활용해 숲을 조성한 곳이다. 전남 함평군 함평 엑스포공원 도시숲은 나비축제장 주변에 규모있는 숲을 만들어 축제를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녹색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시숲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며 "각 지자체가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